

심표 한 스푼

GRC 아산홀에서 청명한 가을과 어울리는 '예술로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문화예술인과 협업한 이번 이벤트에는 직원 70여 명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운드 테라피 & 월드 뮤직'이라는 주제로 4일간 실시한 이번 행사는 팬데믹 기간 낮아진 문화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특별한 기회였다. '사운드 테라피' 프로그램에서는 싱잉볼, 오션드럼 등 생경한 악기를 직접 다루고 나만의 음악을 만드는 작곡 체험도 할 수 있다. 직접 만든 음악은 명상이나 숙면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 전달했고, 퀴즈 이벤트로 진행된 이색 악기 추첨으로 즐거움은 배가되었다. '월드 뮤직' 프로그램은 뮤직 미니 강좌를 통해 재즈와 상송의 탄생과 역사 살펴보기,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아코디언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상송을 따라 부르며 프랑스어 발음도 배우고, 스캇도 체험하는 알찬 구성이었다. 잔잔하게 울려 퍼진 감미로운 선율은 아산홀을 가득 채웠다. 깊어가는 가을날, 마음까지 풍요롭게 해준 시간을 짚어본다.

글 홍보팀 사진 류창렬·김유철



일상 속 힐링 시간

ESG전략팀 이형준 책임매니저

개인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든 상황에서, 무엇보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재즈를 배운 것만으로도 특별하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재즈라는 음악 장르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재즈의 역사와 여러 장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재즈의 음계를 느끼고 스캇도 해본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겁니다. 공연과 강의로 재즈 살롱을 알차게 꾸며준 문화예술인과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홍보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팀 이유나 사원

'재즈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음악으로, 들을수록 더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술로 아카데미'에서 재즈를 배우고 나니 어느새 재즈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이론을 듣고, 함께 실로폰도 두드리며 재즈에 친근하게 접하도록 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무척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연결회계팀 위소정 책임매니저

재즈와 상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소개 글을 보니 지루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점심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라이브 공연을 들으려면 공연장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회사 내에서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다니! 피아노 라이브는 종종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아코디언 라이브는 처음이었어요. 라이브 밴드 공연도 좋았지만 '살롱'답게 재즈의 역사, 프랑스라는 나라와 그 언어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인 알찬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미술, 클래식, 재즈 등 예술 강연을 자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운활유기획팀 정세영 책임매니저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운드 테라피 수업에 두 번 참여했어요. 싱잉볼, 윈드차임 등 유튜브에서만 접한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다른 계열사 직원과 작곡까지 하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악은 수업 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전달해 주셨는데, 평소 명상을 하거나 잠잘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다양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원팀 서여원 사원

건조한 회사 생활 도중 '예술로 아카데미'를 통해 리프레시할 수 있게 해준 홍보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마냥 앉아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명상, 악기 연주, 악보 그리기 등 직접 참여하는 체험이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 시간 퀴즈에서 싱잉볼을 경품으로 받았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마련해 주시면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